

카알·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 연구

金 仁 濟

I 序 言

이 論文은 야스퍼스哲學 가운데서도 1935년의 著作인 「理性和 實存」에서 定礎를 본 「哲學的 信仰」 der philosophische을 가급적 그의 著作全般을 휩쓸고 있는 實存의 概念을 통하여 考察하려는 것이다.

K. Jaspers에 있어서의 哲學의 根源은 哲學的 信仰이라 할 것이다. 즉 「哲學的 信仰은 참된 哲學에 없지 못할 根源이다」¹⁾라고 表現하고 있는 이 哲學的 信仰은 「哲學的 世界定位」와 「實存 開明」 그리고 「形而上學」등 세가지 哲學樣式²⁾에서 超越者를 근거로 Vernunft와 더불어 內在的인 것을 超越한 그 위에다 內在的인 것을 오히려 媒介로 해서 內的行動 inneres Handeln을 상정하고 그 內的行動을 통하여 스스로를 실현하는 實存이야말로 哲學하는 일의 根源으로서의 「哲學的 信仰」인 것이다.

따라서 哲學的 信仰은 단순한 信仰의 一種이 아니며 또 宗教的 信仰을 휘석시킨 것이 아닐뿐 아니라 또한 一種의 宗教觀도 아닌 것으로서, 「哲學的 信仰」은 야스퍼스에 있어서 根源的 哲學의 立場이라 하겠다. 그리고 야스퍼스에 있어서의 哲學은 知識의 體系라기 보다 오히려 信仰의 表現이라고 보아질 때,

- (1) 哲學은 곧 哲學的 信仰이라고 보는 야스퍼스의 理論의 根據는 무엇이며,
- (2) 「理性和 實存」에서 定礎된 「哲學的 信仰」이 그의 哲學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확인하고
- (3) 그 「哲學的 信仰」의 概念이 야스퍼스 哲學의 後期에 이르러서야 定形化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등을 이 本論文에서 밝혀보자 하는 것이 筆者의 意圖이다.

1) Der philosophische Glaube ist der unergründliche Ursprung aller echten Philosophie.
(Jaspers, Existenzphilosophie, s.).

2) a, philosophische Weltorientierung, b, Existenzhellung, c, Metaphysik, (Jaspers: Philosophie)

Ⅱ 哲學은 곧 「哲學的 信仰」이라고 본 理論的 根據

哲學을 信仰의 表現으로 보는 야스퍼스의 관점에 입각하여 그의 철학사상 전체를 一種의 宗教哲學으로 특징짓는 학자도 있다.³⁾ 또한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카톨릭진영의 學者들에게는 不完全한 自然神學 정도로 이해되며⁴⁾ 프로테스탄트 神學者들은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을 基督教의 啓示信仰에 대립하는 哲學的 宗教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態度를 보인다.⁵⁾ 이와같은 態度들은 모두 야스퍼스가 말하는 哲學的 信仰에 대한 잘못된 理解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아진다.

야스퍼스의 後期思想을 장식하는 「理性和 實存」(Vernunft und Existenz, 1935), 「眞理에 관하여」(Von der Wahrheit, 1947), 「哲學的 信仰」(Der philosophische Glaube Angesichts der Offenbarung, 1963) 등의 저술들은 야스퍼스의 實存哲學에 있어서 哲學과 宗教의 混合을 허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일부 宗教學者들의 見解와는 달리 哲學의 宗教化나 宗教의 哲學化는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立證하여 주고 있는 위대한 結論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努力은 1928年 夏季講座에서 야스퍼스의 講義를 경청한 제스윗神父가 그의 講義에 대하여 表明한 論評을 듣고 갑자기 자기의 實存思想이 基督教信仰과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⁶⁾ 야스퍼스는 그의 實存哲學의 內容이 基督教神學에서 다루는 內容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이 제스윗神父의 論評에 자극된 이후 자신의 哲學의 核心을 哲學的 信仰으로 확정하고 宗教信仰과 구별되는 哲學的 信仰의 固有한 特性들을 밝히려고 努力을 계속하였던 것인데 이제 잠시 야스퍼스 자신의 活動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主著들을 놓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야스퍼스의 哲學思想이 실령 다른 實存哲學者들의 경우와 같이 「實存」을 中心으로 삼고 있다손치더라도, 자기 選擇과 자기 創造의 主体로서 實存을 극적 존재로 絶對化 하는 싸르트르(J. Paul Sartre)나 하이데거(M. Heidegger)의 無神論的 實存主義와는 달리 야스퍼스의 實存哲學은 人間의 實存이 그의 實存根據인 超越者의 관계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有神論的 實存哲學의 제보를 따랐거니와 이러한 活動相을 그의 主著들을 통해 그 思想의 전개와의 관련에서 考察해 보는 것이 그의 사상을 이해하고 또 哲學的 信仰의 理論

- 3) sören Holm, "Jaspers" philosophy of Religion: P. Schilpp ed., the philosophy of Karl Jaspers, Tubor Puq. Co., New York, 1957, p.688.
- 4) James Collins, The Existentialists Henry Regnery Co., Chicago, 1952, p.119; J.B. Lotz, Sein und Existenz, .
- 5) Paul Ricoeur, "Relation of Jaspers: Philosophy to Religion, P. Schilpp ed., The philosophy of Karl Jaspers, p.617, 625.
- 6) Karl Jaspers, "philosophische Autobiographie In: Philosophie und Welt, R. Pipe & Co. Verlag München, 1958, S, 337.

의 근거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야스퍼스의 저작은 單行本만으로도 근 30권이 되거니와 이 作品들의 전모는 1956年 것까지 收錄된 1957年에 刊行된 Karl Jaspers의 卷末에 실려있는 biographie에서 잘 알 수가 있고, 또 offener Horizont, 1953(열려있는 地平)의 卷末에 실려있는 biographie에서도 알게되나, 이 것에는 1952年 까지의 저작품밖에 실려있지 아니하다. 이 두개의 自傳的인 biography를 기초로 해서 그 主要著作들을 골라본다면,

먼저 「哲學」이전의 두 著書로서,

(1) Allgemeine psychopathologie, 1913; 4. Völig neu bearbeitete Aufl., 1946. (精神病理學總論)

(2) psychologie der Weltanschauung, 1919; 4. Aufl., 1954. (世界觀의 心理學) 등이 있다. 前者는 精神病理學의 研究방법을 다룬 전문적인 科學이지만, 後者는 「信仰과 世界像 및 態度 設定이라는 人間의 諸可能性 全体를 体系的으로 叙述」한 것으로서 이름은 心理學的 냄새가 풍기나, 실은 「숨은 哲學」이어서 사실 그의 「哲學」이후의 思索內容의 萌芽가 이책의 여러 곳에서 엿보여 진다.

다음으로 哲學에 관한 최초의 主著,

(3) Philosophie, 3 Bde. 1932; 3 Aufl., 1956. (哲學)은 体系書로서 時代意識과 狀況에 관한 記述은 제외되고 있으나 이것들을 종합하여 내놓은 책이

(4) Die Geistige Situation der Zeit, 1931; 5. Zum. (現代의 精神的 狀況)이다. 그런데 哲學의 第二의 主著는 1천페이지가 넘는,

(5) Von der Wahrheit, 1947. (眞理에 관하여)이다. 이것은 야스퍼스를 構想하는 「哲學的 論理學」의 第一卷에 해당한다. 「眞理에 관하여」는 「包括的 存在」「認識의 包括者」「眞理」등 三部作으로 되어 있는데 「哲學的 論理學」은 二卷뒤에 「範疇論」, 「方法論」, 「科學論」을 쓸 것으로 豫定되어 있었으나 未刊으로 그쳤다.

그런데 「야스퍼스」의 哲學的 論理學의 構想을 알기 위해서는

(6) Vernunft und Existenz, 1935. 「理性和 實存」(黃文秀역, 瑞文堂)

(7) Existenzphilosophie, 1938; 2 Aufl., 1956. 「實存哲學」(李相喆역, 徽文出版社)

등 두개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前者는 책이름이 보여주듯 理性和 實存을, 後者는 주로 眞理와 現實을 中心課題로하여 包括者의 思想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그의 思想을 다소 通俗的인 형태로 전해지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著書들을 들 수가 있다.

(8) Der Philosophische Glaube, 1948; 4 Aufl., 1955. 「哲學的 信仰」(申玉姬저, 梨大出版社)

(9) Von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1949. (歷史의 根源과 目標)

(10) Einführung in der philosophie, 1950; 4 Aufl., 1955. (哲學12講義)

다음으로 그의 哲學史上 勞作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11) Nietzsche, 1936. (니이체)

(12) Descartes und die philosophie, 1937. (데카르트哲學)

(13) Schelling, 1955. (셸링)

그런데 야스퍼스의 哲學史的 考察은 단순히 歐羅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世界思想에 널리 파급되어 있던 까닭으로 「世界哲學史」의 서술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一部作이 최근 出版됨에 이르렀다.

(14) Die grossen philosophen, Bd. I, 1957. (偉대한 哲學者들, 제1권)

이 바로 그것이다.

끝으로 그의 小論文을 모은 論文集으로는

(15) Rechenschaft und Ausblick, 1951. (弁明과 展望)

그리고 야스퍼스 哲學의 全般에 걸친 조직적인 綜合的 연구는 다음 두개의 책에 集約되어 있다. 즉

(16) Offener Horizont, 1953. (열려있는 地平)

(17) Karl Jaspers, 1957. (칼·야스퍼스) 前者는 야스퍼스 古稀를 축하하는 記念論文集이요, 後者는 시르프가 편찬한 「現存哲學叢書」중의 한 책이다.

1945年 이후부터 別世할 때까지 야스퍼스는 政治問題에도 관심을 가지고 排他的이고 利己主義的인 權力意志에 의한 투쟁의 비극을 상기시키며 理性과 사랑에 근거한 交際의 共同体로서의 人間世界의 再建을 호소하였다.

야스퍼스의 思想의 核心的 內容을 이루는 包括者論과 哲學的 信仰, 그리고 世界哲學등의 理念은 모두가 人間共同體의 再建을 위해 바쳐진 그의 哲學的 努力의 結實이었다. 이 기간동안의 저술은 모두가 人類가 빠지기 쉬운 排他的 獨善과 自己中心의 思考方式을 치료하고 理性的 交際의 共同体로서의 人間世界의 視界를 提示하기 위한 것이었다.

Ⅱ 「哲學的 信仰」의 概念과 背景

實存哲學의 哲學的 作業은 自由로운 主体로서의 實存을 가능케하는 超越者에의 確信에로 우리를 引導하는 것이거니와 이처럼 個人으로서의 人間을 內面的 思考의 수단을 통하여 스스로 초월자 앞에 서게 하는 哲學은 知識이라기 보다는 信仰의 樣相을 띤다. 철학은 사람은 知識이나

宗敎的 啓示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自身の 自由한 哲學的 探究에서 얻어지는 超越者의 信仰에서 산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思想家 자신이 그의 思想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信仰이다. 다시 말하면 信仰은 主觀的인 信仰行爲만도 아니고 客觀的인 信仰對象만도 아니며, 이 兩者를 統一하는 포괄적인 現實이다. 그러므로 信仰은 主觀만도 아니요 客觀만도 아니며 이 兩者를 統一하는 「一者」 즉 包括者(das Umgreifende)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그의 소위 包括者論과의 밀접한 關係에서 설명되고 있다.

야스퍼스는 그의 信仰의 定義에서 넓은 의미의 信仰一般과 本來的인 信仰을 구별하여 定義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 생각케되는 背景은 무엇일까.

야스퍼스의 哲學중에서 「哲學的 信仰」(Philosophischer Glaube)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술어로 제시되기는 1935년의 「理性和 實存」부터라 하겠다. 1919년의 「世界觀의 心理學」이나 1932년의 「哲學」가운데서도 信仰의 문제는 약간씩 다루어져 있기는 하나, 이 경우 「信仰」은 '사랑'이라든가 '空想'과 거의 같은 위치를 가진 絕對意識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限界狀況이나 無制의 行動과 더불어 實存을 開明하기 위한 基礎概念인데 불과하였다. 이와는 달리 「理性和 實存」에서 사용하고 있는 「哲學的 信仰」은 「哲學的 論理學」과 더불어 그의 哲學全體의 두 領域중 하나의 支柱임을 드러내고 있다.

「理性和 實存」(Vernunft und Existenz)은 「理性」이 實存과 잇대는 위치에 까지 높혀져 包括者의 개념이 처음으로 드러내 놓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의 哲學的 發展에 있어 획기적인 저작이라 하겠거니와, 「哲學的 信仰」이 包括者와의 關係하에 규정해서 그 內容이 展開되고 있는 것은 1947년의 「哲學的 信仰」에서 부터라 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의 哲學的 後半기에 이르러 「哲學的 信仰」에 着想하게 되었을까 그 背景을 알아보자.

銀行의 支配人인 父親과 富農出身의 母親 사이에 태어난 야스퍼스는 教會信仰없이 父親에게서 誠實과 母親에게서 生에 대한 確信과 勇氣를 배웠다. 父親은 70歲때 教會와의 絶別을 선언하였고, 臨終의 자리에서 「信仰, 사랑, 소망—이라고 하나 나는 信仰에 대해 높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信仰이란 분명히 制度化된 教會信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① 父親에게서 경건한 信仰의 嚴肅性을 이어받은 Kierkegaard과는 달리 야스퍼스는 그의 父親에게서 경건한 信仰보다는 知性的 誠實性을, 神에의 絕對的 歸依보다는 스스로 自己의 生을 선택해야 한다는 自律的인 責任意識을 계승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理性을 輕視하는 實存哲學의 傳統속에 理性의 분위기를 불어넣으려고 애쓴 야스퍼스의 필생의 模範이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야스퍼스를 實存哲學의 위대한 思想家로 만든 또 하나의 要因은 그의 좋지 못한 健康狀態에 있었다. 少年時節에 심장협착증이라는 病에 걸려 있어서 다른 靑少年들이 즐기는 운동과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例外者가 되기를 원치않았으나 그의 身病은 그로 하여금 고독한 例外者의 生活를 強要했던 것이다. 막상 30歲를 넘기지 못하리라는 醫師의 宣告로 그는 얼마 남지않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에게 허락된 時限부 人生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려는 일이 그에게는 중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야스퍼스의 生涯는 바로 죽음과 고통의 限界狀況에서 자신의 哲學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30세 밖에 더 못살것이라는 醫師의 宣告와는 달리 야스퍼스는 86歲라는 高齡을 享受하였고 病苦와 싸워야만 했던 그는 健康한 사람이 따를 수 없을만큼 많은 著作을 남길 수 있었다. 限界狀況에서의 挫折과 絶望을 이기는 實存의 自由를 超越者의 선물로서 이해하는 야스퍼스의 根本思想은 단순한 理論的 思辯의 結果가 아니라 야스퍼스 자신의 實存의인 生活의 體驗속에서 움터오른 確信의 眞理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야스퍼스의 思想形成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要因은 그의 學問的인 生涯가 本來 哲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科學에서 出發되었다는 事實에 있다

그는 大學에서 法律공부를 중단하고 醫學공부를 시작한 뒤 드디어는 精神科醫師가 되고 「精神病理學」(Allgemeine Psychopathologie, 1913)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사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健康上의 이유로 精神病理學의 實踐的인 分野를 떠나서 하이델베르그大學 哲學部의 心理學 講義를 맡게 되었는데 이때에 「世界觀의 心理學」(Psychologie der Weltanschungen, 1919)이라는 방대한 著書를 낸 바 있었다. 그 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哲學的 思索에 沒頭하여 왔음을 깨닫고 哲學者로서 學問에 공헌할 것을 決心하여 40세가 거의 다 된 1921年 마침내 哲學教授 資格을 얻어 하이델베르그 大學에서 哲學을 맡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實存의 眞理가 体系化를 拒否하는 眞理임을 体系의 方法으로 提示해 보이려고 1932年의 体系的인 大著「哲學」3卷을 비롯하여 著作들이 事實을 探求하는 方法論的인 認識과 認識不可能한 超越者와 관계하는 實存의 無制約性 사이에서 팽팽히 긴장하고 있는 야스퍼스의 특이한 精神世界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④ 야스퍼스哲學의 배경중 또 다른 要因은 유태인인 그의 妻 게르트르트(Gertrud Mayer)와의 만남이었다. 哲學的인 그녀와 그의 남동생 에른스트 마이어(Ernst Mayer)와 交際하게 된 이후 야스퍼스도 哲學에 대한 關心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첫 저술인 「精神病理學」을 비롯하여 「啓示에 直面한 哲學的 信仰」(1963)에 이르는 수많은 著書들은 어느 것이나 그의 妻의 助力의 덕이었다고 自傳하고 있다.

그러나 유태인인 그의 妻와의 離婚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야스퍼스는 1937年 히틀러의 國家社會主義政府에 의하여 교수직을 박탈당하였다. 1945年 復職까지 그는 그의一生中 견딜 수 없는 어려운 受難의 암흑시대를 견디어야 했다. 이 기간동안 그는 나치스 政權의 排他的 民族主義와 利己主義의 權力意志가 저지르는 무서운 罪惡을 보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야스퍼스

의 中心思想은 고통과 죽음의 問題에서 人類全体的 普遍的 限界狀況으로서의 戰爭과 罪意識의 問題로 뒤바뀌었는데 그의 思想의 核心을 이루는 「包括者論」과 「哲學的 信仰」그리고 「世界哲學」등이 理念은 모두가 眞理, 自由, 平和를 실현하는 새로운 人間共同體의 再建을 위해 바쳐진 그의 철학적 노력의 結實이었던 것이다. 이 기간중의 著作인 「啓示에 직면한 哲學的 信仰」(1963)은 西歐人의 精神世界를 장악하고 있는 啓示宗教로 하여금 排他的 自己 中心主義에서 벗어나 다른 宗教信仰들과의 열려진 交際에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IV 「哲學的 信仰」의 內容

哲學的 信仰은 초월자와 관계하는 實存의 存在確認이다. 그러므로 哲學的 信仰의 內容은 증명 가능한 合理的 知識을 초월하는 眞理인 것이거나와 이를 간명히 요약한다면, 哲學的 信仰은 暗號存在로서의 世界의 現實을 媒介로하여 일어나는 숨은 超越者와 可能的 實存사이의 믿음 수 없을 만큼 생생한 현실적인 관계이다.

哲學的 信仰은 이와같은 그의 本性때문에 숨은 超越者의 객관적 不確實性和 可能的 實存의 內面的인 確信사이의 긴장, 무지의 告白과 결단의 엄숙성 사이의 긴장을 本質的 要素로서 內包한다.

哲學的 信仰을 論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根本要素는 「理性」(Vernunft)이다. 哲學的 信仰은 理性을 不可缺의 根本要素로 하기 때문이다. 哲學的 信仰은 「超越者를 생생한 現實로서 體驗하는 實存의 行爲」이다. 이때 實存의 內面的 確信과 정열은 哲學的 信仰의 核心的 要素가 된다. 그러나 哲學的 信仰은 實存의 深奧한 깊이와 함께 理性의 無限한 밝음속에서 자신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哲學的」信仰이 되는 것이다.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實存의 信仰인 동시에 理性에 의한 信仰 또는 理性的 實存의 信仰이다. 야스퍼스는 그 자신의 實存哲學을 理性的 哲學이라고 부르기까지 할 정도로 實存哲學에서 理性的 性格을 부여하려고 한다.⁷⁾ 「實存은 단지 理性에 의해서만 밝음에 도달하고 또 理性은 實存에 의해서만 內容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⁸⁾ 야스퍼스에 의하면 實存을 결여한 단순한 理性은 空虛한 思辨에 빠지며, 理性을 결여한 實存은 非理性的인 狂信이나 神秘的 直觀의 暗黑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實存과 理性은 야스퍼스의 實存哲學을 구성하는 두개의 核心的 要素이다.

그러나 여기서 야스퍼스가 實存哲學의 根本要素로서 간주하는 理性은 단순한 科學的 悟性을

7) Jaspers, Vernunft und widervernunft in unser Zeit.

8) Jaspers, vernunft und Existenz. S. 49

넘는 것이며, Kant의 理性이나 Hegel의 理性과도 다른 特有한 性質과 機能을 가진 것이다. 야스퍼스가 사용하는 理性概念의 특수한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理性은 實存의 道具 또는 實存의 根本態度로서 存在의 眞理를 탐구하는 可能的 存在에게 일어나는 統一에의 意志요 一者の 意志이다. 理性은 眞理의 諸樣態를 각각 個別的 妥當性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樣態들을 相互共屬的 關聯속에 연결짓는다. 理性은 아무것도 排除함이 없는 全体의 調和와 統一의 파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한편 理性은 모든 全体性의 끊임없는 돌파를 수행한다. 理性은 모든 存在를 포괄하는 一者안에서의 統一을 구하기는 하지만 完結된 閉鎖的 調和를 금지하며 一者の 성급하고 不完全한 고정화의 오류와 기반을 除去하려고 한다. 그러나 理性은 단순한 파괴에의 意志가 아니라 無限한 眞理의 內容에 대하여 자기를 열어놓는 無制限한 開放性을 의미한다.

세째, 理性은 無制限한 交際에의 意志이다. 理性은 밝은 淸취력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經驗에 접하여 자기를 變革시키는 能力을 키워준다. 이와같은 交際は 「나는 단지 他人과 함께 나 自身이며, 또한 交際의 共同體를 구하는 운동안에서만 나 自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理性을 통해서 可能的 것이다.」⁹⁾

哲學的 信仰은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진 理性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特定한 信仰內容에도 固執되지 않는 自由의 信仰이며, 모든 고정화를 돌파하면서 보다 더 넓은 統一을 향해 나아가는 運動속에 존재하는 「넓고 융통성 있는 信仰」이 된다.

永遠히 종결되지 않는 自由에의 途上에서 自己 實現에의 無制約의 決意를 가지고 不確實한 超越者의 音聲에 귀를 기울리며 끊임없는 모험을 敢行하는 實存의 道, 그것이 다른 아닌 哲學的 信仰의 道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信仰의 道가 순수하게 保存되고 지켜질 때 비로소 人間의 自由도 可能해진다.

그리고 야스퍼스의 경우 哲學的 信仰은 宗教信仰과 同一視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哲學的 信仰을 宗教의 代치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선 宗教는 禮拜儀式을 가지고 있고, 禮拜儀式을 中心으로 한 共同體와 結合되어 있고, 초월자와 人間 사이의 실제적인 關係를 核心的 要素로 한다. 이에 反하여 哲學的 信仰은 特定한 禮拜儀式도 信仰共同體의 客觀的 保證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초월자와 人間 사이의 實際的 關係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哲學的 信仰은 어디까지나 個人의 問題로서 哲學하는 사람이 그의 思索의 途上에서 얻어질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살아있는 確信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 信仰과 宗教信仰 사이에 근본적 異質性은 이들 兩者間의 絶對的 斷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스퍼스는 反宗教的인 啓蒙主義思潮에 對항하여 宗教信仰을 옹호하는 立場에 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宗教信仰 一般에 대한 反명제로서 提示된 것

9) Jaspers, vernunft und Existenz, S. 583.

이 아니라, 오히려 哲學的 信仰의 과제는 宗教信仰의 탈선과 왜곡현상을 是正하고 宗教信仰을 그 自身の 本質의인 根源에로 돌려보내는 變革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면 哲學的 信仰의 客觀的 內容과 主觀的 作用은 각각 무엇일까. 야스퍼스는 Kant의 사상에 따라서 主觀과 客觀의 對立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存在自体가 아니라 現象이라고 한다. 存在自体는 主觀도 客觀도 아니요, 이 兩者를 포괄하는 어떤 包越的 存在라는 것이다. 이것을 야스퍼스는 包越者라고 한다. 결국 哲學的 信仰은 包越者를 믿는 것이 아니라 包越者의 存在를 믿는 것이다. 包越者는 非對象의인 것이므로 무엇인지 究明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나 그것의 存在를 믿는 것이다. 즉 모든 對象의인 것은 本來的 存在가 아니라는 것, 本來的 存在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살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確信하는 것이다. 이러한 哲學的 信仰으로 부터 本來的 存在를 探求하는 우리의 哲學的 思索이 可能하고 또 끝없는 노력과 성실을 다할 수 있고 마침내 包越者로서의 超越者를 感知할 수 있는 暗號를 解得할 수 있는 것이다.

V 「哲學的 信仰」의 內實

1. 內 實

「哲學的 信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命題들으로써 표현되고 있다.¹⁰⁾ 즉

- ① 神은 存在한다.
- ② 無制約的 要求는 存在한다.
- ③ 世界는 神과 存在 사이에 소멸하는 現存在를 가진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命題들은 「哲學入門」에서도 엿보이거니와 위의 3命題 외에 上述의 ② 다음에 「人間은 有限하며 完成不可能이다」 der Mensch ist endlich und unvollendar, 와 「人間은 神의 引導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 der Mensch Kann in Führung durch Gott leben, 등 두 命題를 더하였으며, 또 上述한 ③의 「世界」라는 말을 「世界的 實存性」은 die Realität der Welt로 表現하고 있는 것을 합해 5命題로써 표현하고 있다.¹¹⁾ 이와같은 여러 命題들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을뿐 信條가 아니라 우리들을 자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이 命題들을 평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上述한 命題들을 놓고 諸命題들의 叙述方式이나 順序를 볼 것 같으면 ① 存在 그 자체(神)→ ② 實存으로→ ③ 世界存在로, 마치 哲學에서 이루어놓은 上行道順을 逆進시켜 下

10) Vgl, dphilosophie, Glaube, 29.

11) Vgl,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s. S. 81.

行길을 따라 存在 그것으로 부터 下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실령 哲學的 信仰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지 않고 있어도 이미 「哲學」에서 哲學하는 일을 수행케하는 存在 그 自体에 대한 信仰이 존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질때, 이 哲學하는 根源을 哲學的 信仰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哲學」의 「形而上學」, 「實存開明」 및 「哲學的 世界定位」등의 內實을 存在 그 자체에서 제시해준 것이 哲學的 命題내지 前提인 것이다. 따라서 이 內實을 理解하려면 야스퍼스의 「哲學」의 理解없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야스퍼스의 全著作에 걸친 理解가 이 內實을 분명케 할 것으로 안다. 여기서 上述한 命題들을 간명히 정리해 보면

① 「神이 存在한다」는 것은 包括者 그 자체, 存在 그 자체로서의 超越者의 存在를 믿는것을 나타낸 命題이다. 여기서 말하는 神은 「숨은 神」이다. 存在를 證明할 수 없는 存在요. 對象化도 固定化도 될 수 없는 唯一의 것이며 排他性의 要求를 허락치 아니한다. 만일 排他性의 要求를 갖는다면 그것은 非眞理요, 또 그러한 存在를 否認한다든가, 그것을 內在的인 것과 바꾼다는 따위는 無信仰이다. 宗教는 歷史적으로 나타나 있는 限, 排他性의 要求를 가지며, 權威를 絕對的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나, 宗教에서 말하는 神의 概念은 哲學的 信仰의 開明으로써 不可缺의 媒体가 되고 있다. 더우기 일체의 內在 내지 人間을 超越者의 暗號 Chiffre로서 實存이 超越者로 부터의 現實을 얻는 것이라 하겠다. 聖書宗教는 그 眞理를 갖는 것임과 동시에 많은 脫線도 없지 않는 것이나 그 神에 대한 思想은 本來的으로는 排他性의 要求를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排他性의 要求는 人間의 課業이지 神에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神은 人間에 대하여 神에 이르는 많은 길을 열어놓았다.¹²⁾ 이처럼 哲學的 信仰은 宗教의 眞理를 찾아내기도 하며, 宗教를 純化해 주기도 한다.

② 「無制約的 要求가 있다」고 하는 말은 實存에 관한 말로서 實存이 無制約的 要求를 가진다고 함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無制約 要求는 現存在的 目的 및 權威로 부터의 自由이다. 그래서 그 根源은 超越者에서 나온 實存의 愛 Liebe가 된다.¹³⁾ 內在的 要求로부터의 自由인 包括者 그 자체에 향한 單獨者의 要求가 人間 本來的 要求라고 보는 것이 이 命題의 의미이다.

「人間은 有限的이며 完成不可能한 것이다」 혹은 「人間은 神에 의하여 引導되는 한에서만 삶을 얻게 된다.」고 함도 결국 人間의 有限性의 自覺의 表明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人間은 可能的 實存으로서 現存在이면서 意識一般으로서 또 精神으로서 더욱 實存하고 있는 것이나 包括者 그 자체에서 照明해보면 人間이 有限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現存在로서의 生命도 意識一般으로서의 認識, 그리고 精神인 理念마저도 有限할 뿐아니라 實存일지라도 다른 自己存在와의 交通에 의해 비로소 本來的 自己自身이 된다는 의미에서 有限하다.

12) Vgl, philosophie, S. 75.

13) Vgl, Einführung indie philosophie, S. 50.

그리하여 無限的인 것을 향해 有限性이 自覺되며, 또 有限性의 自覺이 無限的인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인바 人間이 有限的이며 完成되어 있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은 束縛과 동시에 自由로서의 無限性의 可能을 의미한다. 哲學的 信仰은 이러한 可能性을 믿는다. 動物은 有限性을 갖는 것이면서도 그 有限性을 自覺치 못하며 그 有限性은 完結性을 갖는 것이지만, 「人間의 有限性만은 完成不可能이다. ……不完結性 Ungeschlossenheit는 人間의 自由의 信號 Signum이다.」¹⁴⁾ 人間이 神의 소리를 一義的으로 單獨者로서의 歷史的 實存이 狀況下에 있어서 決斷的으로 解讀되는 것은 人間이 神으로부터 주어진 自由인 것이다. 決斷과 浮動의 兩極性의 緊張 속에서 神에 의하여 인도되어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實存이다.

③ 「世界이 實在性¹⁵⁾은 神과 實存사이에서 소멸하는 現存在를 가진다」고 하는 命題는 現象으로서의 世界存在는 存在 그 자체인 것이 아니고 有限性을 가지며, 그리하여 그 소멸하는 世界存在에 있어서 神과 實存이 서로 만난다는 것, 즉 存在의 信仰에 입각한 實存의 實現은 世界存在에서만 이루어져 永遠한 存在는 時間的 現象이 되는 한에서만 經驗되는 것을 의미한다. 現實存은 存在 그 자체가 아니고 「現存在의 現象性은 哲學的 思惟의 根本洞察인 것이다」¹⁶⁾ 그리하여 世界 그 자체는 全体로서는 對絶化할 수 없는 것이나 世界全体에 관한 總體的 判斷은 잘못이 되며, 調和的, 樂天的 世界觀도 厭世觀도 虛無主義도 잘못이 된다는 것이다.

VI 「哲學的 信仰」의 性格

위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哲學的 信仰의 性格이 公明性(Offenheit)임이 분명해진 것으로 안다. 이 公明性은 「實存의 理性」 Verunft der Existenz¹⁷⁾에서 온 것으로 이러한 理性 그 自体는 無制限의 公明性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안다.¹⁸⁾ 理性의 근원인 것은 實存이며, 實存은 根源의 源泉 Quelle로서의 사함도 超越者인 一者에 發源하는 것이므로, 결국 存在 그 자체인 一者에 哲學的 信仰의 性格인 無制約的인 公明性이 그 근원이 되는 것이다. 즉 存在 그 자체가 最根源의 無制約者인 것이어서 그 存在에 의하여 생기는 態度인 哲學的 信仰은 存在 그 자체에서 無制約的인 性格을 갖게 된다. 存在 그것은 사랑(愛)이며, 存在 그것은 理性的인 原象 Urbild 이라고도 표현될 統一된 意識이 바로 哲學的 信仰의 根本的 性格이라 할 것이다.

超越者를 「一者」라고 表現하고 實存의 交通의 實體를 사랑(愛)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4) Jaspers, Philosophie, Glaube, S. 54.

15) Jaspers,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R. Piper & co. Verlag, 1972, S. 45.

16) philosophie, S. 32.

17) Verunft und Existenz, S. 117.

18) Verunft und Widerverunft in unserer Zeit, S. 34.

또 實存의 公明化 過程을 「사랑의 鬭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리라 믿어진다. 哲學的 信仰으로써 사는 것이 實存이겠으나 그 實存의 道具 Werkzeug der Existenz로서 作用하는 것은 理性인 것이다. 理性은 上述한 바와같이 사랑(愛)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나 哲學하는 일의 제일선에 서는 것이므로 哲學的 信仰이 理性에 의해 뚜렷해진다.

야스퍼스의 後期思想, 즉 1935年 이후에 나타난 「哲學的 信仰」은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그의 前·後期를 통한 哲學의 根本思想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야스퍼스의 實存哲學에 있어서의 實存은 超越者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現存在, 意識一般, 精神이라는 主体의 存在方式이 內在的인 것으로서 世界라는 內在的인 것에 대응하며 있는 것으로서의 實存하며, 또 實存으로서의 우리들 자신들은 超越者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可能的 實存이 本來的 自我의 확신을 얻어서 現實的 實存이 된다는 것은 超越者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自由와 運命을 자신의 것으로 인수해서 無制約的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의 哲學의 主体인 實存과 超越者는 각각 獨立되어 있는 實體的인 것으로 存在되어 있어서 實體的 實存에 의해 超越者를 믿는다면, 혹은 固定된 超越者로부터 實存을 확실히 한다는가 하는 그러한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可能的 實存은 超越者를 感知하는 일에 의해서 비로소 實存이 되며, 반면 超越者는 단지 實存에 의해서만 一者로서 存在 그 自体로 感得되는 것이다.

이처럼 實存과 超越者와의 相關的 相互性 관계는 야스퍼스 哲學 기반을 일관하는 根本思想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實存과 超越者간의 關係를 나타내고자 한 概念이 「哲學的 信仰」인 것이므로 哲學的 信仰은 그의 全哲學을 一貫하고 있는 根本思想이라고 말해 무방하다. 이점에 관하여 1947년의 「眞理論」으로 대표되는 「哲學的 論理學」과의 關係를 놓고 考察해 볼 때,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첫째, 啓示의 信仰이거나 教會의 信仰과는 判異한 異質的인 것으로 提示되고 있다.

그가 啓示와 教會信仰을 批判하고 있는 要点中的 하나는 啓示信仰이 「啓示」라고 하는 具體的인 것에 의해 본래 걸로 나타나 있지 않던 神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는 点이다. 教會에 대해 비판적이던 父親의 影響을 받아 成長하였고 「啓示를 不信한다」¹⁹⁾고 고백하고 있는 야스퍼스에 있어 神은 언제나 숨어있는 神이었던 것이다. 基督敎的 傳統 가운데 낳고 그 哲學的 信仰이 歷史的 制約을 면치못하리라는 것을 自覺하고 있는 Jaspers에 있어서는 廣義의 基督敎的인 것의 影響은 決定的인 것이 아니던가 싶다. 이러한 그의 哲學의 本質에 관한 대목은 여러 곳에서 이 影響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敎에 대한 Jaspers 自身の 自覺的인 態度

19) Der philosophische Flaubé angesichts der Offenbarung. 1962. S. 105.

는 오히려 비판적이다. 그 최대의 이유는 바로 앞서 지적한 特定の 啓示信仰이라는 그리스도教的 信仰의 핵심에 관계된다. 그리스도교가 神의 受肉神人 그리스도가 그 復活이라는 啓示를 廣範圍한 人間體驗의 無限의 寶庫인 聖書에서 抽出해서 그 핵심으로 한 點이다. 이러한 啓示를 기초로 하고 있는 點에서 傳統的인 그리스도교가 비판되는 것이다. 그의 西歐的·그리스도教的 傳統가운데 있는 것을 自覺하는 경우 그는 이러한 것들을 聖書宗教라고 하는 西歐的 宗教의 歷史性을 펴고 있다는 것으로만 승인한다.

야스퍼스가 啓示信仰과 教會를 批判하는 또 다른 하나의 焦點은 그것이 自身の 信仰의 唯一的 眞理性을 主張하여 이 主張을 가지고 다른 모든 信仰을 排斥하는 點이다. 물론 그의 哲學的 信仰도 信仰인 한 無制約的인 絕對的 的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의 無制約性이나 絕對性은 哲學的으로 信仰하는 各自個人에게만 妥當한 것일뿐 이런 것을 他者에게 要請된다는 事 強制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哲學的 信仰의 眞理는 特定個人에 있어 無制約的인 것 같은 眞理인 것이지 결코 모든 사람에게 같은 內容의 것이 妥當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自身の 唯一性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 哲學的 信仰은 交際 가운데서 비로소 自己가 될 수 있는 實存의 信仰이며 또 모든 限定을 돌파해 가는 理性을 同伴한 信仰으로써만 哲學的인 것이다.

위의 啓示信仰과 教會的 그리스도교 信仰에 대한 야스퍼스의 비판을 대충 요약해 보면

① 哲學的 信仰에서의 超越者가 실은 哲學的 論理學에서의 眞理存在와 상응하는 것이어서 「모든 包越者의 包越者」·「存在」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그의 根本思想에 기반이 두어진 것이다.

② 教會的 啓示信仰의 排他性의 비판이라는 그의 두번째의 焦點은 실은 모든 限界를 돌파해서 主客을 초월한 眞理의 存在로 다가서는 理性이 無制限의 交際의 機能이며 哲學的 信仰은 이 理性에 의한 信仰인 점에 기본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두개의 性格은 現代(Nihilism)의 尙 尙 내지 科學的 迷信의 尙 尙에 對立하는 것으로서 提示하고 있다. 現代에 이르러 모든 信仰을 잃어 Nihilism이 一般化되어 있다는 主張은 야스퍼스가 一貫해서 되풀이 하고 있는 現代에의 批判이다.

그 原因중의 하나는 「기독교의 無力化」에 있는 것이겠지만 近代 이후의 歷史的 精神狀況에 걸맞지 않는 科學迷信尙 尙이라 하겠다. 科學的——學問的으로 승인되는 眞理만을 絕對視하는 立場에서 모든 超越的인 것을 無視해 버리는 Nihilism이 생기기 쉬운 것이되므로 그러한 Nihilism에서 哲學하면서의 信仰의 길을 救出해 내는 일이 그의 哲學的 信仰의 課題가 된다.

야스퍼스는 哲學이란 것은 단지 普遍的 認識, 學問的 知識과 그 基礎分析, 그리고 存在論學的 哲學이라고 보아지는 것들에 시종 反對한다. 야스퍼스에 있어서의 哲學은 결코 客觀的 沒價值的인 學問따위도 아니고, 人間이 存在意識과 더불어 自我의 內的 態勢를 變革시켜 自身

에게 無制約의 眞理를 획득하는 것이 그가 바랐던 哲學이었다. 이러한 哲學觀은 그의 「哲學」에서도 엿보이거니와, 그는 그 「哲學」의 著述에 지음하여 그 前提로서 「學問的으로도 強制的이 아니며, 普遍妥當한 것이 아닌 思惟가 있다」고 밝혀 그가 가진 哲學觀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哲學觀은 前·後期를 통한 그의 全著作에 共通的으로 발견된다. 즉 야스퍼스에 있어서 「哲學은 하나의 信仰의 表現이던 것이다」

哲學의 信仰은 한편으로는 啓示的 信仰과 異質의인 것으로 批判하면서 提示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客觀的인 學問과 根源을 달리 하는 것으로 科學에 빠지기 쉬운 Nihilism에 대처하는 것으로 提示되었었다. 더욱 이 哲學的 信仰은 哲學하는 그 자체였던 만치 啓示와 科學사이 에 있는 哲學의 獨自의 意義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理性和 實在」에서 처음으로 提示된 「哲學的 信仰」은 Kierkegaard의 例外者에 의한 啓示信仰과 Nietzsche의 無神性 主張과의 對立사이에서 이 兩極에 의해 자극받으면서 自身의 哲學的 思惟를 다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VII 結 言

이상에서 考察해은 「哲學的 信仰」을 간명히 간추려본다면

첫째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現代世界에 또 하나의 새롭고도 낮은 現代的 信仰行態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哲學의 永遠한 本質이 무엇이며 現代世界에서 「哲學한다」 philosophieren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한다. 즉 宗教側의 一般的인 哲學觀과 哲學을 근거없는 환상에 매달리는 비이성적인 個人的 사사로운 信念程度로 착각하는 科學側의 一般的인 哲學輕視의 풍조는 哲學의 本質과 意義에 대한 시급한 反省을 촉구하고 있는 차체에 야스퍼스는 哲學은 오늘날 宗教의 侍女가 될 수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科學의 侍女가 됨으로써만 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 한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오늘날 哲學이 宗教와 科學사이에서 애매한 位置에 놓이게 된 것은 哲學과 宗教, 哲學과 科學사이의 긴밀한 相互關聯性에도 연유하지만 그 보다도 科學을 哲學에로 환원시켜 宗教와 科學의 全體的 體系로서의 永遠의 哲學(philosophia perennis)을 꿈꾼 觀念論者들과 哲學을 科學에 환원시켜 科學哲學을 수립하려고 한 實證主義者들의 混亂된 思考方式에 연유한 것이다.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上述한 바와같이 宗教와 哲學, 科學과 哲學의 부당한 혼선을 除去하고 宗教와도 다르고 科學과도 다른 哲學固有의 根源과 課題와 方法을 提示하므로써 現代에 있어서의 哲學의 危機를 克服하려 한 하나의 試圖라는 점에서 偉大한 現代的 意義를 지닌다고 보겠다.

둘째로,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現代에 있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人間의 「非人格化」라는 문제와의 對決을 中心問題로 클로즈업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現代의 의의를 지닌다.

야스퍼스는 現代의 時代精神을 支配하고 있는 여러 形態의 虛無主義와 宗教的 狂信主義 및 科學的 迷信등은 모두가 自由한 個人의 本來的 自己確信이 상실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파괴적인 結果들이라고 본다. 包括者의 근원으로부터 살고 包括者에 의해 인도되는 包括者의 信仰으로서의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한편으로는 存在理解의 無限히 열려진 地평을 지시함으로써 宗教의 權威主義와 科學的 迷信의 束縛에서 自由로운 眞理探求의 可能性을 보호하며 또 한편으로는 現象界의 超越的 根源인 包括者의 存在를 確認함으로써 虛無主義의 絶望을 克服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哲學的 信仰에 근거하여 살 때 人間은 存在理解의 무한한 可能性안에서 傳統의 權威나 客觀的 知識의 보장도 없이 순전히 個人의 主体的인 결단으로 돌려 보내진다.

세째로,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신앙속에 참다운 理性的 態度를 確立하려고 한 점이다.

야스퍼스 思想의 現代의 意義는 哲學的 信仰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信仰을 창안하였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理性的 思考에 의한 信仰의 自己理解와 전달의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는데 있는 것이다. 哲學的 信仰은 實存, 自由, 超越者등 思惟不可能한 非對象의 信仰의 眞理를 人間의 有限한 思考속에 나타내우는 包括者의 根本知와 哲學的 基本操作의 方法을 통해서 위대한 現代의 貢獻을 보였다. 이점에 관한한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비트겐슈타인과는 다른 길을 택한 듯 하다. 信仰의 實質的인 無內容성이야말로 哲學的 信仰의 위대성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네째로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無制限한 交際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있다. 야스퍼스는 그의 包括者 思想을 통하여 存在에 관한 모든 認識의 有限성과 歷史의 多樣성을 우리에게 밝혀 주며 그의 世界哲學을 통하여 모든 思想과 信仰들이 排他的 自己主張을 포기하고 共同的인 眞理探求를 위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동의 넓은 광장을 마련하려 한 것은 야스퍼스의 위대한 공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世界哲學의 多様な 哲學과 宗教의 內容을 包括的 一者의 탐구로 환원해 버리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包括者는 어떤 內容에도 制限될 수 없는 열려진 概念이기 때문에 無制限한 對話의 空間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內容을 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根源을 달리하는 暗號들의 투쟁을 하나의 眞理를 목표로 하는 「사랑하먼서의 투쟁」으로 變革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空虛한 原理인 것 같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限

21) philosophie, Glaube. S. 117.

界에도不拘하고 理性과 交際에의 의지로 一貫되는 야스퍼스의 哲學的 信仰은 우리에게 不確實한 未來에 直面하여 主体의인 責任意識을 가지고 不可能을 시도할 수 있는 信念을 가지도록 激勵해 주는 思想이라 하겠다. 한편 야스퍼스는 그의 「未來의 哲學」²¹⁾에서 哲學의 現代的 課題로서 다음과 같이 네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우리들은 우리의 不安Unruhe의 끊임없는 覺醒에 의해 安靜(安心)Ruhe을 구한다.

둘째, 우리들은 虛無主義를 통해서 傳統의 獲得에 도달한다.

셋째, 우리들은 우리가 哲學하는 일의 眞理의 前提인 모든 科學들의 純粹性을 구한다.

넷째, 理性은 無制限의 交通意志가 된다고 주장한다.

紙面關係로 詳細한 부연을 가할 여유는 없으나 야스퍼스가 의도하는 바는 哲學的 信仰은 一者의 信仰이요, 永遠한 哲學 philosophia perennis, 永遠히 하나(一)의 哲學에 향하여 歷史的 근원을 되찾는 그러한 哲學의 구상이었으며, 自己閉鎖性에 陷沒함이 없이 더구나 本來的인 自我로 회복하는 哲學, 그리면서 分明하게 實存的 交通에 의하여 哲學할 수 있는 길은 실로 哲學的 信仰으로 부터라 하겠다.